昭顯世子의 死因에 관한 考察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金勳*

The Research of the crown prince So-Hyeon`s death cause

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Kim Hoon

Many historians presume that several kings included the crown prince were killed by poison in the Jo-Seon dynasty. Above all, there is every possibility of killing the crown prince So-Hyeon(昭顯) by poison.

The crown prince So-Hyeon was detained for 8 years in Sim-Yang(瀋陽). He died suddenly in two month from coming home. According to an authentic record, official death causes were malaria. Bu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a young crown prince die of malaria at the age of 34. His dead body shows change of skin color and bleeding from the ear, eye, mouth, and nose. This is the sufficient evidence that he was killed by poison.

King In-Jo have a doubt that he was ousted from his post by crown prince So-Hyeon in conspiracy with cheong imperial court. Especially, after the crown prince So-Hyeon's death, owing to cold attitude that king In-Jo shows and a tragic affair that occurred to the crown prince's family, king In-Jo is under suspicion as the mastermind of the murder. Another poisoners are Jo-So Yong(趙昭容) and Lee-Hyeong Ik(李馨益). Jo-So Yong, a royal harem, intrigue against the couple of crown prince So-Hyeon. Lee-Hyeong Ik that win king In-Jo's favor take charge of the medical treatment. We supposed that toxic substance is arsenic poison.

Key words: Crown prince So-Hyeon, Death cause, Poison, Arsenic poison

1. 들어가는 글

조선시대 임금, 세자 가운데 종종 독살설이 제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그 의혹이 누구보다도 큰 대표적 인물은 아마도 소현세자일 것이다. 실록의 기록 중에는 소현세자의 시신 상태를 언급하면서 독살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후 소현세자의 독살설은 끝임 없는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소현세자(昭顯世子)는 인조(仁祖)와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 사이의 장자(長子)로 태어나 인조반정(仁祖反正) 2년 후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소현세자는 정묘년과 병자년의 2차례에 걸친 병화로 인해 험난한 세자 시절을 보내야 했으며, 특히 병자호

*교신저자: 金勳,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051-850-8652, hkim@deu.ac.kr

란의 항전 끝에 맺어진 맹약으로 인해 세자빈 강씨, 아우 봉림대군과 함께 심양에 끌려가 8년간의 억류 생활을 하게 된다[1].

소현세자는 심양에 머무는 기간에 새롭게 흥기하는 청(淸)이 명(明)보다 군사력에 있어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귀국하기 전해에는 청의 원정군을 따라 직접 북경에 들어가기까지 한다. 북경에서 그는 독일인 선교사 아담샬(Adam Schall)을 만나 서양의 역법(曆法)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 지식을 전수받았으며, 천주교에 대한 소개를 받아 주자학적 세계관을 벗어난 새로운 시각과 국제감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풀어놓지 못한 채 귀국 2달 만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과연 소현세자는 독살되었는가? 독살되었다면 어떻게 봉건왕조시대에 세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며, 그 배후에는 누가 관련되어 있는가? 또 사용된 독극물은 어떤 것인가?

본고에서는 소현세자와 관련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 및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藥房日記의 기록을 중심으로 그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독살의 정황

1) 소현세자의 시신상태

소현세자의 독살설과 관련한 의혹의 출발은 실록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된다. 소현세자 사망 2달 뒤에 행해진 졸곡제(卒哭祭)[2] 때의 기록에 소현세자의 염습에 참여한 이세완의 언급을 빌어 그 시신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세자 사망 직후 종실의 일원으로 이세완이 세자의 소렴(小殮)과 대렴(大殮)[3]에 참여했었는데, 그 시신상태가 비정상적이었고 독살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鮮血)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멱목(幎目)[4]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 빛을 분변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藥物)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外人)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종실 진원군(珍原君) 이세완(李世完)의 아내는 곧 인열 왕후(仁烈王后)의 서제(庶弟)였기 때문에, 세완이 내척(內戚)으로서 세자의 염습(斂襲)에 참여했다가 그 이상한 것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5] (인조 23년 6월 27일)

이 기록에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시신의 얼굴을 검은 멱목(幎目)으로 덮어 놓았는데 멱목과 얼굴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의 색깔이 온통 검은 빛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 모두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신 상태는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누구라도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의 기록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빙성 있는 독살의 증거가 된다. 이 기록을 제외하고는 독살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없다. 다만 독살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 일반 역사관련 기술에는 소현세자의 심양 억류기간을 9년간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은 끌려간 시점부터 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억류기간은 만 8년 정도가 된다. 소현세자는 인조 15년(1637년) 2월에 끌려가 인조 23년(1645년) 2월에 돌아온다.

2) 졸곡제(卒哭祭): 삼우(三虞)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지 석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서 지냄. 졸곡이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으로 그 동안 수시로 한 곡을 그치고 아침저녁으로 상식할 때만 곡을 한다.

3) 소렴(小殮): 죽은 이튿날 시체를 堂中으로 옮겨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로 감싸는 의식. 대렴(大殮):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신을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

4) 멱목(幎目): 네 귀에 끈을 달아 小殮 때에 시신의 얼굴을 싸는 검은 헝겊.

5) "世子東還未幾 得疾數日而薨 擧體盡黑 七竅皆出鮮血 以玄幎覆其半面 傍人不能辨 其色有類中毒之人 而外人莫有知者 上亦不之知也. 時 宗室珍原君 世完之妻 仁烈王后之孼弟也. 世完以內戚 與於襲斂 見其異常 出語於人."

2) 석연치 않은 인조의 태도

다음 보위를 이어갈 세자가 독살되었다면 적어도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인조의 사주(使嗾)내지는 묵인(默認)이 없고서는 이루어질 수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소현세자의 독살설 배후에 첫번째로 거론되는 인물이 소현세자의 부왕인 인조이다.

인조가 독살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줄 사료는 찾을 수 없지만 세자 사후, 인조가 보여준 석연치 않은 태도와 조치는 그 혐의를 충분히 갖게 한다. 그것은 소현세자를 상례(喪禮)를 예법에 맞지 않게 야박하게 정한 것이라든지, 세자빈 강빈을 사사(賜死)하는 등 세자 일가의 비극을 가져오게 한 점이다.

상례를 예법에 걸맞지 않게 한 것을 보면, 세자의 관을 재궁(梓宮)이라 칭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대부들에게 쓰이는 용어인 구(柩)로 칭하게 한다든지[6], 무덤의 칭호도 園자 대신 墓자를 쓰도록 한 것[7]이다. 또한 상복을 입는 거상기간도 예법에 의하면 인조 자신은 1년상에 해당되었으나 한 달을 하루로 계산하는 易月法을 적용해 12일 만에 마치려고 하다가 한 등급을 더 감해 7일만에 마치고 말았다[8]. 백관들이 상복을 입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1년복을 입어야 하나 3개월의 단상(短喪)으로 결정했고, 이의 부당함을 주장한 송준길을 체직(遞職)[9]하기까지 한다[10].

3) 소현세자 일가의 비극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 일가는 잇달아 비극을 맞게 된다. 세자 사후, 당연히 세자에 옹립되어야할 소현세자의 장자 석철(石鐵)이 원손(元孫)의 자리에서마저 폐위되고 대신 소현세자의 아우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된다[11].

6) "찬궁은 설치하지 말고 4일 만에 성복할 것이며 구(柩) 자를 쓰라." (인조 23년 4월 26일)
7) 인조 23년 4월 27일.
8) 인조 23년 4월 28일.
9) 遞職: 當直을 교체함.
10) 인조 23년 5월 20일.
11) 인조 23년 9월 27일.

이듬해 1월초에는 인조가 전복구이를 먹다가 독이 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데, 세자빈 강빈을 주모자로 지목한다. 이러한 소위 '전복구이 사건'으로 강빈을 모셨던 궁녀 정렬과 유덕이 가혹한 고문 중에 죽게 되었고[12], 강빈도 결국 대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월에 들어와 폐출되어 사사된다[13]. 그러나 실록에는 이 사건이 형세상 발생할 수 없는 추측만의 무고에 의한 것이며, 그 배후에 세자빈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조의 후궁 조소용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14]. 또한 비극은 강빈의 사가(私家)에까지 미쳐 강빈이 죽기 약 보름 전에 강빈의 형제 강문성, 강문명도 죄를 뒤집어써 장살(杖殺)되었고[15], 강빈이 죽고 난 약 1년 뒤에는 강빈의 어머니 예옥(禮玉)마저 처형된다[16].

같은 해 5월,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는데[17], 제주도에서 큰 아들 석철이 이듬해 9월 사망하고[18], 둘째 석린은 12월에 사망한다[19]. 실록의 기록에는 석철이 장독(瘴毒), 즉 풍토병으로 사망했다 기록하고 있으나 암살의 혐의가 없지 않다. 소현

12) 인조 24년 1월 3일.
13) 인조 24년 3월 15일.
14) "상이 궁중의 사람들에게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양궁(兩宮)의 왕래가 끊겼으므로 어선(御膳)에 독을 넣는 것은 형세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상이 이와 같이 생각하므로, 사람들이 다 조씨(趙氏)가 모함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인조 24년 1월 3일)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숙의(趙淑儀)에게 죄를 돌렸다." (인조 24년 3월 15일)
15) 인조 24년 2월 29일.
16) 인조 25년 4월 25일.
17) "소현세자의 세 아들인 이석철(李石鐵)·이석린(李石麟)·이석견(李石堅)을 제주에 유배하였다.…… 당시 석철은 12세, 석린은 8세, 석견은 4세였다." (인조 25년 5월 13일)
18) "소현세자의 큰아들인 이석철(李石鐵)이 제주(濟州)에서 졸하였다.……이에 앞서 용골대(龍骨大)가 왔을 적에 석철을 데려다가 기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들 그가 반드시 보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한 것이다.……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장독(瘴毒)이 있는 제주도로 귀양보내어 결국은 죽게 하였으니……" (인조 26년 9월 18일)
19) 인조 26년 12월 23일.

세자 사후, 청의 장수 용골대는 석철을 데려다 기르겠다고 말하였는데, 의심 많은 인조는 청에서 석철을 키운 후 자신을 폐위하고 석철을 옹립할 것을 내심 두려워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자의 상례를 행하면서 보여준 인조의 냉정한 태도나, 며느리 강빈을 사사하고 강빈의 어미와 형제까지 죽게 한 일, 손자 석철 등을 제주도에 유배해 죽음으로 내 몬 조치 등은 세자와 세자빈에 대한 인조의 극도의 반감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4) 학질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실록의 기록에는 소현세자의 공식적인 사망원인을 학질(瘧疾)로 말하고 있다. 즉, 사망 3일 전에 소현세자에게 병이 발생했는데, 어의는 학질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한 것이다[20]. 약물치료에 대한 기록은 보이질 않고 죽기 전 소현세자는 계속해서 침치료를 받게 되는데[21] 끝내 사망하고 만다.

젊고 건강했던 세자가 학질에 걸린지 3일 만에 사망할 수 있었을까?

소현세자의 질병관련 기록은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다만 심양에서의 억류기간 중에 병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온다[22]. 기록에는 병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소현세자가 27세의 왕성한 시절이었고 이후 다른 질병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감모(感冒) 증세 정도가 아니였나 추측된다.

이렇게 평소 건강했던 젊은 세자가 학질로 급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래에 들어와 학질이 쉽게 볼 수 없는 병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꽤 흔한 병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23]. 흔한 만큼 그 증세와 치료법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東醫寶鑑』에도 「雜病篇·痎瘧門」에 학질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24].

젊고 건강한 세자를, 그것도 증세나 치료법이 잘 알려진 학질 같은 병을 최고의 의술을 가진 어의들이 치료하지 못하고 죽게 하였을까?

오늘날 학질은 아노펠레스모기(Anopheline mosquito)에 물려 말라리아원충(Plasmodium)이 인체에 침입하여 발생한 말라리아(Malaria)를 의미한다. 말라리아 원충은 3일열, 4일열, 열대열(熱帶熱), 난형열(卵形熱)의 4가지가 있다. 말라리아의 증세는 특유한 열발작과 빈혈 및 비장이나 간장의 종창을 나타내는데, 3일열과 난형은 3일째마다, 4일열은 4일째마다 열발작을 일으킨다. 열대열은 부정형의 고열을 낸다. 일반적인 증세는 전신권태·식욕부진·두통·오한·사지견인통(四肢牽引痛) 등으로 시작하며 이후 갑작스럽게 오한전율(惡寒戰慄) 증상이 나타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약하게 뛴다.[戰慄發作期] 오한전율 증세는 대략 1-2시간 지속되다가 열발작이 일어난다. 이때는 고열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체온이 39-41℃에까지 이른다.[灼熱期] 이 시기에는 갈증과 해수 증세도 수반된다. 이후 그 극점을 지나면 많은 땀을 흘리며 열이 내린다.[發汗降熱期] 반면 열대열은 말라리아 원충이 뇌의 소혈관에 괴어 뇌의 연화소(軟化巢)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 뇌형 말라리아라고 하며 치사율이 매우 높다[25].

우리나라의 학질은 종별상(種別上) 온대성 말라리

---

20) "세자가 병이 났는데, 어의(御醫) 박군(朴礥)이 들어가 진맥(診脈)을 해보고는 학질로 진찰하였다. 약방(藥房)이 다음날 새벽에 이형익(李馨益)에게 명하여 침을 놓아서 학질의 열(熱)을 내리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23년 4월 23일)

21) "세자가 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4일) "이날 세자가 또 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5일)

22) "세자가 병이 들었으므로 선전관(宣傳官)을 심양에 보내어 문병하였다." (인조 16년 5월 20일) "어느날 용골대(龍骨大)가 한인(漢人) 의원을 데리고 느닷없이 세자의 침소에 들어와 병세를 진찰하고 갔는데 병환의 사실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인 듯 하였습니다." (인조 16년 6월 1일)

2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 1128.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학질은 거의 매해 돌림이 있었고 특히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에는 앓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이 된 이후에는 없어진 지 오래 되었다."

2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p. 517-525.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권10. p. 892.
新太陽社 編輯局. 원색최신의료대백과사전. 서울. 新太陽社. 1991. 7권, pp. 150-151.

아인 3일열에 해당한다[26]. 3일열 말라리아는 보통 2-3일을 간격으로 惡寒戰慄, 發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발병직후 고열로 의식을 잃기도 하며 치사율이 높은 열대성과는 다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말라리아는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며, 지병이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지 않는 이상에는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27].

이런 학질에 젊고 건강했던 세자가 급사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특히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염습시의 세자의 시신상태는 학질로 인한 사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3. 누가 소현세자를 독살하였나?

1) 인조의 의심 많은 성격

학질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면 염습시에 드러난 시신의 상태를 보건대 독살의 혐의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자가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시신에 그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당시 상황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부왕 인조의 사주나 묵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소현세자가 심양에 끌려갈 때, 직접 전송하며 눈물까지 흘렸던[28] 인조가 어떻게 큰아들 소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그 해답은 인조의 의심 많은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인조는 소위 '仁祖反正'으로 광해군을 축출하고 집권한 임금이었다. 이렇게 신하들의 힘에 의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전대의 다른 임금들에 비해 권력의 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권력기반의 취약성은 줄곧 권신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었고, 또 다른 반정을 염려해야만 했다. 특히 즉위 초인 인조 2년에는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하기도 하였으며, 인조 10년에는 인목대비의 초상 때에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내용이 들어있는 백서(帛書) 3폭을 발견하기도 한다[29]. 이괄의 반란이나 반정(反正)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던 정치적 후원자 인목대비의 변심은 인조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더욱 의심하는 성격을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도 언제든지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깊은 의구심은 인조로 하여금 누군가 자신을 해치고자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몇 차례 저주관련 옥사를 일으키게 한다. 인조 10년 10월에 대신들이 "궁중에 저주하는 변고가 있어 흉측한 물건이 낭자하다고 합니다. 엄히 국문하여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소서"라고 청하자 인목대비를 모셨던 궁인 귀희와 옥지, 귀희의 종 덕개를 신문하였고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형된다[30]. 약 7년 후에도 궁중의 여러 곳에서 저주한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에 인목대비와 관련된 다수의 궁인이 가혹한 고문 끝에 죽게 된다[31]. 인조는 두 차례의 저주사건 배후에 인목대비의 딸인 정명공주가 있다고 생각하여 처벌하고자 하였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32]. 인조는 궐내에 묻힌 저주의 물건을 다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2차례 거처

26) 이문호 외. 內科學. 서울. 學林社. 1986. p. 777.
소진탁. 寄生蟲學槪論. 서울. 신광출판. 1984. p. 154, 160.

27) 이문호 외. 內科學. 서울. 學林社. 1986. p. 778.

28) "세자와 대군이 절하며 하직하고 떠나자, 상이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기를 '힘쓰도록 하라.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가볍게 보이지도 말라.'하니 세자가 엎드려 분부를 받았다." (인조 15년 2월 8일)

29) 인조 10년 10월 23일에 궐내에 저주하는 물건을 묻은 것으로 의심받아 인목대비 측근 궁인들이 처형된다. 이 날의 기록에는 4개월전 인목대비 초상 때에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내용의 백서(帛書) 3폭이 발견되어 인조가 척속(戚屬)들에게만 보여주고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록에는 백서의 내용까지는 수록해 놓고 있지 않으나 인조는 인목대비가 자신을 축출하고자 한 것으로 의심했던 것 같다.

30) 인조 10년 10월 23일.

31) 인조 17년 9월 5일.

32) 김인숙의 논문은 인조의 질병과 이형익에 의한 번침술을 저주와 관련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김인숙. 인조의 질병과 번침술. 의사학. 13권 2호. 2004. pp. 198-218.)

를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기기까지 한다[33].

이런 상황 하에 인조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자신의 질병도 누군가의 저주에 의해 생긴 사수(邪祟)라 생각했었고, 사망 직전까지 약 16년간이나 이형익의 번침(燔鍼)에 의지하여 낫고자 하였다[34].

인조는 이렇게 스스로의 한계로 인해 누군가 자신을 해치고자 하며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의심의 대상에서 큰아들 소현세자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2) 소현세자를 의심한 인조

인조는 어떤 계기로 소현세자를 의심하고 반감을 갖게 되었을까?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심양으로 끌고 간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히겠다는 '왕위교체론'을 흘려 인조를 긴장시키기도 했다[35]. 소현세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청의 뜻에 의해 조선의 임금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하에 인조는 멀리 심양에서 들려온 세자의 근황보고에 점차 그 의심을 굳혀갔다.

소현세자는 조선과 청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청의 고관대작들과 친분을 맺었으며, 청이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막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쓸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이윤추구의 상거래를 하기도 하였다[36]. 심양에서 세자는 양국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청에서는 실질적인 조선임금의 노릇을 대리하게 되었다[37]. 이런 소현세자의 행동과 親淸사고는 삼전도의 뼈아픈 치욕을 안고 있는 인조에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으며, 세자에게 극심한 감정적 반감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왕위교체의 위협은 소현세자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닌 최대의 정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소현세자에 대한 인조의 반감은 세자의 임시귀국시에 드러난다. 소현세자는 8년간의 억류기간 동안 부왕 인조의 병환으로 인해 2차례 임시 귀국을 한다. 첫 번째 귀국은 심양에 끌려간 지 3년만인 인조 18년 3월이며, 두 번째 귀국은 영구귀국 1년 전인 인조 22년 1월이다[38].

첫 번 귀국 직전, 인조의 의심을 부추기는 '망룡의(蟒龍衣)'[39] 관련 사건이 심양에서 보고된다[40]. 국왕의 장복인 망룡의를 세자가 입었다는 보고였다. 이것은 인조에게 청에서 실질적인 조선의 임금을 세자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비춰졌고, 망룡의를 입은 세자의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후일 孝宗의 아우 인평대군이 사신으로 북경에 갔을 때 망룡의를 입게 되

---

33) 인조 17년 9월 13일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한 달이 채 안된 10월 6일에 다시 창경궁(昌慶宮)으로 돌아온다. 인조 25년 11월 12에는 '묻혀진 흉악한 물건을 다 파내기 어렵고 거처를 옮기는 것이 침의 효험보다 빠를 것'이란 이형익의 건의에 다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다. 이후 인조는 창덕궁에서 죽기 전까지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사망한다.

34) 김훈. 조선시대 仁祖의 질병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8권 2호. 2005. pp. 15-37. 인조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내용은 拙稿를 참고하길 바람.

35) 한명기. 丙子胡亂 패전의 정치적 파장-청의 조선 압박과 仁祖의 대응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2003. 119호. pp. 55-66. (앞의 김인숙의 논문, 212쪽에서 재인용.)

36)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단확(丹雘: 고운 빨간 빛깔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屯田)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館所)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상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인조 23년 6월 27일)
"세자가……모든 행동을 일체 청나라 사람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고 전렵(田獵)하는 군마(軍馬) 사이에 출입하다 보니, 가깝게 지내는 자는 모두가 무부(武夫)와 노비들이었다.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전혀 폐지하고 오직 화리(貨利)만을 일삼았으며, 또 토목 공사와 구마(狗馬)나 애완(愛玩)하는 것을 일삼았기 때문에……" (인조 23년 4월 26일)

37) 박영규. 조선의 왕실과 외척. 서울. 김영사. 2003. p. 330.

38) 첫 번 귀국은 인조 18년 3월 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약 1달 뒤인 4월 2일에 심양으로 출발한다. 두 번째는 인조 22년 1월 20일에 도착하여 2월 19일에 돌아간다. 2번의 귀국 모두 서울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1달 정도이다.

39) 망룡의(蟒龍衣): 코끼리·용을 그린 옷. 명(明)나라 때 오랑캐 추장이나 각신(閣臣)에게 내려 준 것.

40) "용골대가 뜰안으로 세자를 데리고 들어가 먼저 안마(鞍馬)를 주고 다음으로 의복을 내어 주었는데, 대홍망룡의(大紅蟒龍衣)를 입게 하였습니다. 세자가 이것은 국왕의 장복(章服)이라 하면서 예에 의거하여 굳게 사양하자, 용골대가 한(汗)에게 고하고 그대로 따라 주었습니다." (인조 18년 2월 18일)

는데, 효종(봉림대군)은 이전에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서 망룡의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의도가 후대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다른 뜻이 없음을 변호하고 있다[41].

그러나 이런 사정과는 달리 당시 세자를 의심한 인조는 세자의 첫 번 귀국 시 차가운 환영을 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 즉, 세자의 귀국 행차에 어의를 보내고자 하는 내의원의 주청을 거부하였으며[42], 세자를 마중나갈 것을 시강원에서 건의하였으나 따르지 않은 것이다[43]. 간원에서 아뢴 내용[44]을 보건대도 세자의 귀환을 맞이하는 의식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4년 뒤의 두 번째 귀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관 정명수(鄭命壽)가 청이 세자를 귀국시키려 한다는 전언에 인조는 청과 세자가 결탁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인조는 청이 봉림대군은 놔두고 세자만 보내는 것을 "중한 것을 포기하고 가벼운 것을 취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구왕(九王) 다이곤[45]과 세자가 결탁해 자신을 볼모로 불러들이고 세자를 국왕으로 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46]. 다음달 11월의 기록에도 세자의 귀국에 "반드시 예측하지 못할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한 의심을 드러낸다[47].

이런 의심스런 세자가 돌아오자 인조는 궁료(宮僚)[48]들이 세자를 마중하겠다고 청함에 마지못해 서울에서 가까운 벽제까지만 나가도록 허락하며[49], 서울에 머무는 기간에 세자빈 강씨가 사가 부친의 묘에 참배하고[50] 늙은 모친을 찾아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51]. 충효의 대의명분을 중시했던 당시의 상황에 이런 인조의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며, 그만큼 세자빈 내외를 미워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세자 내외가 심양으로 되돌아간 1달 뒤쯤 해서 심기원(沈器遠) 등이 인조를 상왕으로 내쫓고 소현세자를 추대하는 거사를 도모하다 사전에 발각된 사건이 있게 된다[52]. 이 사건은 소현세자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인조가 더욱 세자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계기가 된다.

마지막 세자 내외의 영구 귀국 시에도 인조는 "딴 마음은 없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청과

41) "저쪽 사람들은 의복에 법도가 없어서 군졸의 무리도 용포(龍袍)를 입는다. 소현 세자(昭顯世子)와 내가 심양(瀋陽)에 갔을 때에 저들이 망룡의(蟒龍衣)를 주어 입게 하였는데, 이제 인평(麟平)이 갔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하니, 대개 후대하는 뜻일 것이다." (효종 4년 7월 3일)

42) "내의원이 세자가 행차하여 오는 중도에 어의(御醫)를 보낼 것을 청하니, 상이 일이 형식적인 데 가깝다 하여 보내지 말도록 하였다." (인조 18년 2월 20일)

43) "시강원의 관원들이 사마(私馬)로 며칠 노정(路程) 밖에서 세자를 맞이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인조 18년 2월 23일)

44) "묘사(廟社)에 고하고 진하(陳賀)하는 절목에 대해 모두 부표(付標)하여 시행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길에도 여연(輿輦)과 의물(儀物) 및 궁료(宮僚)들 중 어느 하나도 맞이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인조 18년 2월 24일)

45) 다이곤(多爾袞): 태조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 태조에게 사랑받고, 태종 밑에서 중용되어 예친왕(睿親王)으로 봉해졌다. 태종이 죽고 순치제(順治帝)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정친왕(鄭親王)과 함께 보정왕(輔政王)으로서 섭정하였으나, 드디어는 정친왕을 누르고 실력자가 되어 정국(政局)을 담당하였다. 1644년에는 명장(明將) 오삼계(吳三桂)를 선도(先導)로 하여 北京에 천도하였으며, 이어 중국 전토를 무력으로 평정하였다.

46) "청인이……전일에는 세자에 대한 대우를 지나치게 박하게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후하게 한다 하니, 나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저들이 만약 좋은 뜻으로 내보낸다면 세자와 대군을 다 돌려보낼 것인데, 중한 것을 포기하고 가벼운 것을 취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도리어 의혹이 생긴다." (인조 21년 10월 11일)

47) 인조 21년 11월 3일.

48) 궁료(宮僚): 동궁(東宮)에 딸린 모든 관료(官僚).

49) "서울에 있는 궁료(宮僚)들이 중로(中路)에 나가서 세자를 마중하겠다고 청하니, 상이 인마(人馬)의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벽제(碧蹄)까지만 가서 마중하게 하였다." (인조 22년 1월 9일)

50) 세자빈 강씨의 부친 강석기는 세자 내외가 2번째 귀국하기 약 6개월 전인 인조 21년 6월 13일에 사망한다.

51) 인조 22년 2월 9일과 10일의 기록을 보면 삼정승(三政丞)이 세자빈 강씨에게 부친의 묘를 찾아가 곡하고 모친을 살펴보는 절차(往哭省親之節)를 허락하도록 인조에게 극력 주청한다. 그러나 인조는 이를 모두 물리친다.

52)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 심기원(沈器遠)이 전 지사(知事) 이일원(李一元), 광주부윤(廣州府尹) 권억(權億) 등과 함께 세자가 귀국했을 때 거사를 일으켜 인조를 상왕으로 내쫓고 소현세자를 추대하여 북벌을 추진하려 하였다. 이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사 전에 소현세자가 되돌아가자 대신 회은군 이덕인(懷恩君李德仁)을 추대하려 하였으나 부사직(副司直) 황익(黃瀷)과 오국별장(五局別將) 이원로(李元老) 등의 고변으로 발각된다. (인조 22년 3월 21일)

소현세자의 의도를 의심한다[53].

당시 소현세자 내외를 의심했던 인조의 마음은 세자 사후 강빈마저 조작된 혐의가 짙은 '전복구이 사건'으로 처벌하고자 직접 내린 비망기(備忘記)[54]와 교서(敎書)에 잘 드러난다. 비망기에서 인조는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하면서 미리 홍금적의(紅錦翟衣)[55]를 만들어 놓고 내전(內殿)의 칭호를 외람되이 사용하였으며"라고 하였으며[56], 교서에서는 "심양(瀋陽)에 당도하여서는 곧바로 왕위를 바꾸려는 흉측한 꾀를 꾸몄으며 전(殿)의 칭호를 참람되게 사용하였으니……"라고 한다[57].

인조에게 소현세자 내외는 적국 청만큼이나 증오의 대상이었으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정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3) 의심을 부추긴 조소용

인조가 세자내외를 의심하고 증오하게 되는 데는 인조의 후궁 조소용(趙昭容)[58]의 부추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소용은 인조의 두 번째 왕비 장렬왕후 조씨와 인조 사이를 이간질하여 서로 별거하게끔 만들기도 했던[59] 시기와 질투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조소용은 세자 내외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인조의 총애를 빌미로 평소부터 세자 내외를 모함하고 의심을 부추겼다.

"상의 행희(幸姬) 조소용(趙昭容)은 전일부터 세자 및 세자빈과 본디 서로 좋지 않았던 터라, 밤낮으로 상의 앞에서 참소하여 세자 내외에게 죄악을 얽어 만들어서, 저주를 했다느니 대역부도의 행위를 했다느니 하는 말로 빈궁을 무함하였다." (인조 23년 6월 27일)

세자 내외의 2번째 귀국시 청에서 인조를 내쫓고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히고자 한다는 내간(內間)의 참소가 있었는데[60] 그 내간은 조소용을 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강빈이 죽게 되었을 때 세간의 민심은 그 죄를 조소용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61]. 이러한 조소용의 끊임없는 모함으로 인해 의심 많은 인조는 더욱 소현세자를 믿지 않고 증오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4) 치료를 담당했던 이형익

소현세자의 독살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인물로는 조소용의 측근이자 인조의 신임을 받았던 이형익(李馨益)을 거론할 수 있다. 조소용의 부추김을 받은 인조가 세자를 독살하고자 했다면 그 과정에는 세자의

53) "청나라의 이 조치가 참으로 좋은 뜻에서 나왔고 딴 마음은 없는 것인가?" (인조 22년 12월 6일)

54) 備忘記: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承旨에게 전하는 문서.

55) 적의(翟衣): 왕후가 입는 붉은 비단 바탕에 꿩의 깃으로 장식한 옷.

56)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하면서【갑신년 봄에 청나라 사람이 소현 세자와 빈을 보내 주었는데, 그때 내간에서 혹 말하기를 '강빈이 은밀히 청나라 사람과 도모하여 장차 왕위를 교체하는 조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를 듣고 매우 미워하였다. 그러나 외부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미리 홍금 적의(紅錦翟衣)를 만들어 놓고 내전(內殿)의 칭호를 외람되이 사용하였으며……【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시종들이 세자를 동전(東殿)으로 불렀고 강빈을 빈전(嬪殿)으로 불렀는데, 대개 저들이 보고 듣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세자와 빈이 스스로 부른 것은 아니었다. 진신들 사이에서도 간혹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다.】" (인조 24년 2월 3일)

57) "역부(逆婦) 강은 타고난 성품이 음험하고 간사하며 몸가짐이 거칠어서 오랫동안 대궐 안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섬기는 유순한 예의를 크게 상실하였고, 심양(瀋陽)에 당도하여서는 곧바로 왕위를 바꾸려는 흉측한 꾀를 꾸몄으며 전(殿)의 칭호를 참람되게 사용하였으니……" (인조 24년 3월 19일)

58) 인조의 후궁 조씨는 인조 18년 8월 27일 昭容(내명부 정3품의 位號)에 봉해지며, 세자 사후인 27년 2월 11일에 貴人(내명부 종1품의 位號)에 까지 오른다.

59) "이에 앞서 외간에 내전이 본시부터 풍병을 앓아 왔는데다가, 또 조소용(趙昭容)의 이간질로 해서 딴 방에 별거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았으나, 궁중의 비밀스런 일이어서 알고 있는 자가 없었는데……바깥 사람이 처음으로 상이 내전을 별치시킬 뜻이 있음을 알았었다." (인조 23년 10월 9일)

60) "갑신년 봄에 청나라 사람이 소현 세자와 빈을 보내 주었는데, 그때 내간에서 혹 말하기를 '강빈이 은밀히 청나라 사람과 도모하여 장차 왕위를 교체하는 조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를 듣고 매우 미워하였다." (인조 24년 2월 3일)

61)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숙의(趙淑儀)에게 죄를 돌렸다." (인조 24년 3월 15일)

치료를 담당했던 의관(醫官) 이형익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독살은 음식물이나 약물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음식물에 의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계연성이 낮고 약물, 즉 탕제에 독을 탓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임금이나 세자의 수라는 소위 '기미상궁(氣味尙宮)'에 의해 독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음식을 올리기[62] 때문이다. 더군다나 동궁 소속의 별도의 주방과 전속 요리사가 있어[63] 세자 주방의 상궁나인들을 통해 음식에 독물을 넣는다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약물에 의한 독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약물에 직접 독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

탕제에 손쉽게 접근해 독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인조에게 있어 세자독살이라는 엄청난 일을 비밀리 맡길만한 믿음직한 인물은 이형익 뿐이었다. 이형익은 인조가 죽기 전까지 가장 총애했던 의관(醫官)이었으며 조소용의 측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형익은 『仁祖實錄』 가운데 의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출현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식 취재(取才)를 거치지 않고 내의원의 천거를 통해 대흥(大興)[64] 땅에서 불려 올라와 의관이 된 인물이었다. 이후 그는 인조가 죽기 전까지 약 16년간 인조의 치료를 전담하다시피 하였고 인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용인현령(龍仁縣令)을 거쳐 김포군수(金浦郡守)에까지 제수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다른 임금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번침(燔鍼)'을 인조에게 계속해서 시술한다. 이형익의 번침술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여 여러 대신들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를 처벌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종일관 인조의 변호로 무사할 수 있었다[65].

이런 인조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이형익은 조소용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병치료를 목적으로 조소용의 사가(私家)를 출입하면서 조소용의 어머니와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형익은 인조의 사람이자 조소용 어머니의 정인(情人)이었던 것이다.

"형익은 침술(鍼術)로 상께 총애를 얻어, 일찍이 병을 치료할 일로 조소용(趙昭容)의 어미 집에 왕래하였는데, 인하여 추잡한 소문이 있었다." (인조 23년 1월 4일)

이런 이형익이 세자의 병치료를 담당했기 때문에 독살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형익은 세자가 죽기 3일전, 세자에게 병이 생겨 학질로 진단되었을 때부터 세자가 사망할 때까지 날마다 침을 놓는다[66]. 당시 실록의 기록에는 세자가 계속해서 침치료를 받은 것만 이야기 할 뿐 약물치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양사(兩司)[67]에서 왕세자의 치료를 담당한 이형익을 국문하기를 청하면서 "침놓고 약 쓴 것이 적당함을 잃은 소치"라 말하는 것[68]을 보건대 약물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세자 사후,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했던 이형익을 인조가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혹이 더욱 커진다. 세자가 사망한 다음날, 양사(兩司)에서 치료를 맡았던 이형익과 다른 의원들을 잡아다 국문하고 죄줄 것을 주청하였으나 인조는 따르지 않았으며[69], 다음달 2일에도 의원들의 죄를 논할 때 인조는 그들을

62)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硏究. 서울. 一志社. 1987. pp. 189-190.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서울. 돌베개. 2002. p. 83.

63)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 120. 신명호의 같은 책, p. 82.

64) 대흥: 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

65) 이형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두 拙稿를 참고하길 바란다. (김훈. 조선시대 仁祖의 질병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5. 18권 2호. pp. 15-37.) (김훈. 朝鮮中期 鍼醫의 활동과 李馨益의 燔鍼術. 한국의사학회지. 2005. 18권 2호. pp. 93-135.)

66) "세자가 병이 났는데, 어의(御醫) 박군(朴頵)이 들어가 진맥(診脈)을 해보고는 학질로 진찰하였다. 약방(藥房)이 다음날 새벽에 이형익(李馨益)에게 명하여 침을 놓아서 학질의 열(熱)을 내리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 23년 4월 23일) "세자가 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4일) "이날 세자가 또 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5일)

67) 양사(兩司): 司憲府와 司諫院.

68) 인조 23년 4월 27일.

69) 인조 23년 4월 27일.

처벌하지 않았다[70]. 이후 이형익을 처형하라는 송준길의 상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71], '시질(侍疾)하다가 상고(喪故)를 당나면 시질했던 자를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정해진 법이라는 양사(兩司)의 강한 건의[72]도 다시 한 번 거부한다. 또한 김광현이 이형익을 처형하라 극렬하게 논박할 때도 세자빈 강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형익을 변호한다[73].

큰아들 소현세자의 석연치 않은 죽음, 인조의 표현대로라면 '뜻밖의 망극한 참변'[74]을 당하고서도 이렇게 끝까지 이형익을 보호하는 것은 인조와 이형익 간의 그 무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4. 『承政院日記』의 기록

『承政院日記』는 세자 사망 당시의 상황을 실록보다 자세히 말하고 있다.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藥房日記가 발병 당시 세자의 증상과 병세, 그리고 치료내용 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세자에게 침치료와 함께 淸心元, 柴胡知母湯, 小柴胡湯 등의 약물을 복용시킨 것을 보여준다. 세자의 발병 시점인 4월 23일부터 세자가 사망하게 된 4월 26일까지의 4일간의 승정원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①4월 23일 - 李馨益이 世子에게 試鍼하러 들어간다는 李行遇의 계.

"금일 午時 무렵 세자에게 다시 惡寒戰慄의 증후가 있어 박군, 이형익으로 하여금 입진케 하였는데 지난 22일 밤중에도 갑자기 오한전율 증세가 있다가 오늘 다시 발생하였으니 이것은 학질증세로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 침을 써서 학질의 열의 내리고 다시 증후를 살펴 약을 논의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형익이 여기에 의거해 때맞춰 침을 놓고자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75]

②4월 24일 - 王世子에게 梔子連皮炒을 첨가한 柴胡知母湯 3貼을 지어 들여 증세를 본 뒤에 다시 상의하겠다는 藥房의 두 번째 계.

"왕세자가 지난 21일 밤중에 갑자기 오한전율을 앓아 시간이 지나자 증세가 그쳤고, 22일에는 정상적이더니, 23일에는 또 오한전율을 앓아 무거운 갖옷을 입어도 추위에 떠는 증세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이르러 한기는 비로소 풀렸으나 번열이 계속해서 일어나 정신이 혼미해지자 청심원을 드려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열의 기세가 물러나지 않아 밤중 내내 괴로워하시고 잠을 들지 못했으며, 번열로 인한 갈증이 또한 심해 정화수를 드렸으나 조금도 갈증이 멎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천식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편안히 눕지 못했습니다. 이 증후를 유후성, 박군 등의 여러 어의들에게 물으니 먼저 시호지모탕에 (연피로 초한)치자, (강즙초한)황련 각 1돈, (염수초한)황백 5푼을 가해 3첩을 복용한 후에 증세를 본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처방을 들이는 의도를 감히 아룁니다. 상이 답하기를 '알겠다.'"[76]

③4월 25일 - 王世子의 傷寒을 치료할 때 崔得龍을 참여시켜 議藥할것을 청하는 三提調의 계.

"삼제조가……'신 등은 일찍이 최득룡이 상한병을 치료

70) "합계하여 다시 이형익(李馨益)·박군(朴薀)·유후성(柳後聖) 등의 죄를 논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71) 인조 23년 5월 20일.

72) "시질(侍疾)하다가 상고(喪故)를 당하고 나면 시질했던 자를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에는 상전(常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신하들이 따지는 것은 오직 법뿐입니다. 이형익 등을 속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인조 23년 6월 12일)

73) 인조 23년 윤6월 1일. 김광현의 사위 강문명(姜文明)이 강빈(姜嬪)의 오라비였다. 즉, 김광현은 강빈 사가와 사돈관계에 있어 인조는 이러한 상소에 그 의도를 의심하면서 매우 노한다.

74) "午時量 王世子薨逝. 藥房問安. 答曰 意外遭此罔極之慘矣." (承政院日記, 인조 23년 4월 26일)

75) "左副承旨李行遇啓曰 今日近午 世子復有寒戰之候 令朴薀·李馨益等入診 則以爲去二十二日夜間 猝然寒戰 今日亦復如是 此必瘧候無疑. 先於明早試鍼 以瀉瘧熱 更觀症候 議藥爲當云. 李馨益依此臨時入針之意 敢啓. 答曰 知道."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3일)

76) "藥房再啓曰 王世子 去二十一日夜間 猝患寒戰 移時乃止 二十二日氣候如常 二十三日己未 又患寒戰 雖御重裘 不能禁其寒縮. 至夕時 寒氣始解 煩熱繼作 精神昏迷 進淸心元 稍得鎭定 而熱勢未退 達夜煩惱 不得入寢 湯候亦甚 進井華水而少無止歇 喘息巃[危]急 不得安臥 以此症候 問于柳後聖·朴薀諸御醫等 則以爲先用柴胡知母湯 加梔[梔]子連皮炒·黃連薑汁炒各一錢 黃柏鹽水炒五分 三貼後 姑看症候如何 更議云 以此劑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4일)

하는데 가장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박군으로 하여금 막중지사를 홀로 전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최득룡으로 하여금 약을 의논하는 대열에 와서 참여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이 답하기를 '아뢴대로 하라.'"[77]

④4월 26일

○王世子에게 乾葛 등을 첨가한 小柴胡湯 3貼을 지어 들이겠다는 三提調의 계.

"왕세자의 증후를 최득룡에게 물으니 상한증이 풀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6일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소시호탕에 건갈, 지모, (주세초)생지황, 지골피 각 1돈, 황백초, 치자초 각七分, 황백염주초 五分을 가해

연달아 3첩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알겠다."[78]

○世子의 병이 심하므로 受鍼을 조금 물려서 거행하겠다는 三提調의 두 번째 계.

"세자의 증후가 매우 위독해 신 등이 세자궁을 찾아 대령하였습니다. 수침하는 것을 조금 물려서 시행하고자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 답하길 '알겠다.' 거듭 전교하여 말하길 수침시에 단지 침의 두사람만 입시하고 모든 어의들은 함께 세자궁을 찾아 대령하라."[79]

○王世子의 병이 심하므로 崔得龍 등을 入直시키고 提調 1員이 돌아가면서 直宿하겠다는 三提調의 세 번째 계.

"왕세자의 증후가 가볍지 않아 혹시라도 담화가 불의에 상승하는 때에 응급의 방도를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일로부터 어의 최득룡, 유후성, 이형익, 박태윤 등을 궐내에 입직시키고 제조 1원을 돌아가면서 숙직하고자 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 '아뢴대로 하라.'"[80]

○王世子가 薨逝함

"午時 무렵 왕세자가 훙서하였다. 약방이 문안하니 상이 답하길 '뜻밖의 망극한 참변을 당했다.'함."[81]

이러한 『承政院日記』의 4일간의 기록을 토대로 소현세자의 병상일지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일시	내 용
4월21일	학질증세가 시작됨.
4월22일	낮에 정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이다가 밤중에 다시 惡寒戰慄 증세가 발생됨.
4월23일	낮까지 惡寒戰慄 증세가 지속되어 가죽옷을 입어도 惡寒症이 멎지 않음. 어의들이 瘧疾로 진단함. 저녁에 한기는 풀렸으나 煩熱이 일어나 정신이 혼미해짐. 淸心元을 복용시켜 진정되었으나 발열이 멎지 않아 밤중 내내 괴로워하고 잠을 들지 못함. 煩熱로 인한 渴症이 심함. 천식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편안히 눕지 못함.
4월24일	이형익의 침치료가 시작됨. 梔子, 黃連, 黃柏 등을 가미한 柴胡知母湯 3첩을 복용.
4월25일	상한병에 뛰어난 최득룡을 치료에 참여시킴.
4월26일	乾葛, 知母, 生地黃, 地骨皮, 黃柏, 梔子 등을 가미한 小柴胡湯 3첩을 투여하고자 함,
	증후가 위독해져 受鍼을 조금 물려서 거행하고자 함. 수침시에 鍼醫 두사람만 입시하게 함.
	병이 심하여 최득룡, 유후성, 이형익, 박태윤 등을 入直시키고 提調 1員이 돌아가면서 直宿하고자 함.
	午時 무렵 왕세자 사망.

표 1. 『承政院日記』의 기록상에 나타난 세자의 병상일지

즉, 21일 시작된 세자의 오한전율 증세가 23일까

77) "三提調 以草記啓曰 卽者王世子 以傷寒症候 久未和解 令朴頵 入診議藥 而臣等曾聞崔得龍 最長於治療傷寒之病. 此時不可使朴頵 獨專莫重之事 使崔得龍 來參議藥之列 何如? 答曰 依啓."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5일)

78) "三提調 再啓曰 卽以王世子症候 問于崔得龍 則傷寒未得和解 今至六日. 小柴胡湯加乾葛·知母·生地黃酒洗(炒)·地骨皮各一錢 黃柏炒·梔子[梔子]炒各七分 黃柏鹽酒炒五分 連用三貼爲當云 故以此劑入之意 敢啓. 答曰 知道."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6일)

79) "三提調啓曰 世子症候重劇 臣等來詣世子宮待令 以此受鍼差退行之之意 敢啓. 答曰 知道. 仍傳曰 受鍼時 則只鍼醫二人入侍 諸御醫 俱詣世子宮待令."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6일)

80) "三提調三啓曰 王世子症候非輕 或有痰火不意上升之時 應急之道 不可不預思. 自今日御醫崔得龍·柳後聖·李馨益·朴泰允等 限差歇間 入直闕內 提調一員 亦爲輪替直宿之意 敢啓. 答曰 依啓."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6일)

81) "午時量 王世子薨逝. 藥房問安. 答曰 意外遭此罔極之慘矣." (승정원일기, 인조 23년 4월 26일)

지 지속되어 어의들은 학질로 진단한다. 23일 병세가 상당히 심해져 저녁부터 번열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지자 청심원(淸心元)을 복용시킨다. 조선왕가의 대표적 구급약이었던 청심원은 바로 학질에 적용되는 처방이라기보다는 번열로 인한 인사불성(人事不省)에 응급처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질치료가 시작되어 침 시술과 함께 시호지모탕 가미방이 투여됐고, 25일에는 상한병에 뛰어난 최득룡이 치료에 참여한다. 26일에는 소시호탕 가미방을 복용시킨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후 증후가 위독해져 정오 무렵 소현세자는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시호지모탕(柴胡知母湯)이나 소시호탕(小柴胡湯)은 모두 학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처방이다. 시호지모탕은『東醫寶鑑·雜病篇·痎瘧』에 수록되어 나오는 처방으로 熱瘧과 瘴瘧을 치료하는 처방이며[82], 소시호탕은 한열왕래(寒熱往來)하는 소양병(少陽病) 반표반리(半表半裏) 상한병의 대표적 처방이다[83].

학질의 주 증상이 오한전율(惡寒戰慄)과 번열(煩熱)이 교대로 발생하는 소위 한열왕래 증상이며, 세자의 학질 치료에 상한병에 뛰어난 최득룡을 참여하게 한 것을 보건대 학질을 상한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4일부터 시작된 학질 치료는 표면상 큰 잘못이 없이 진행되어 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틀 뒤인 4월 26일에 들어와 세자의 증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된다.

독살의 혐의를 두고 생각해 보면 문제는 소시호탕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자의 위급한 병세가 나타난 시점은 소시호탕을 투여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있고 난 직후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질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낮고, 비상(砒霜)과 같은 효력이 신속한 독물을 사용해 독살했다면 사망 당일 투여된 약물에 의혹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망 당일의 기록이므로 세자가 소시호탕을 복용하기 전에 먼저 사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삼제조(三提調)가 이 처방을 들이는 의도를 아뢰자 인조가 '알겠다'라고 한 것을 보건대, 보고 직후 오전에 급히 소시호탕을 투여했었고, 독이 든 소시호탕을 복용한 소현세자가 정오 무렵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은 아닐까?

세자의 병세가 위독해진지 한나절도 못되어 급사하게 된 정황은 소시호탕에 그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

5. 어떤 독물이 사용되었나?

1) 조선의 독약, 비상(砒霜)

고대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독은 짐독(鴆毒)이었다.『山海經』에 처음 언급되어 나타나는 남방의 짐(鴆)이라는 새는 전신에 독이 있어 이 새의 날개로 저은 술을 마시게 함으로서 독살에 사용하였다고 한다[84].『本草綱目』에도 수록되어 나오는[85] 짐(鴆)은 원래 실재하지 않은 가공의 새이다[86]. 비석(砒石)을 가열할 때 맹독성의 아비산(亞砒酸, As_2O_3), 즉 비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때 나오는 연기를 새의 깃털에 쐬면 비상 결정체가 부착된다. 아마도 짐독은 이 깃털을 술에 저어 독살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

82)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 520. "柴胡知母湯 治熱瘧及瘴瘧. 柴胡 知母 各一錢半 蒼朮 黃芩 乾葛 陳皮 半夏 川芎 各一錢 甘草炙 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梅二 水煎 淸晨服 午前又一服. 久瘧 加人蔘 當歸."

83) "小柴胡湯 治少陽病半表半裏 往來寒熱 能和其內熱 解其外邪 傷寒方之王道也. 柴胡 三錢 黃芩 二錢 人蔘 半夏 各一錢 甘草 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東醫寶鑑. p. 382.)

84) 시노다 고이치著·이송은譯. 중국 환상세계. 서울. 들녘. 2000. pp. 129-130. 한나라 유방(劉邦)의 황후인 여태후(呂太后)는 성격이 강하고 굳세 고조(高祖) 사후, 남편의 총애를 받았던 척부인(戚夫人)의 소생 여의(如意)를 짐(鴆)의 날개로 저은 술을 먹여 독살했다고 한다.

8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下冊. pp. 2678-2679.

86) 우에노 마사히코著·박의우譯. 독살. 서울. 살림. 2005. p. 10. 최근 뉴기니아의 밀림에 서식하는 어떤 종류의 새는 피부와 깃털에 강한 독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짐(鴆)이 실재하는 새라는 주장도 있다.

으로 추측된다[87].

조선시대에는 독살을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독물이 이용되었을까? 그리고 소현세자의 경우 독살되었다면 실제로 어떤 독극물을 사용하였을까?

조선시대 왕족이나 사대부를 처형할 때 사용하던 사약(賜藥)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면 그 답변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기록상에는 사약의 독극물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88]. 사약에 들어간 독물의 종류에 대해 여러 가지 추론을 하지만[89] 비교적 구하기 쉽고 치사(致死)의 효력이 확실한 비상(砒霜)과 부자(附子), 초오(草烏) 등이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극약의 재료는 주로 비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한 문헌자료를 찾기 힘들다. 일설에는 생금(生金), 생청(生淸), 부자(附子), 게의 알(蟹卵) 등을 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나, 이것에 즉사시킬만한 독성이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국내에는 부자 종류에 속하는 초오(草烏: 미나리아제비과)가 많이 야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날것으로 또는 끓여서 먹으면 위장 안에서 점막출혈등상이 심하게 일어나 토혈을 하면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구하기 힘든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비상이나 초오를 사약의 재료로 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90]

그렇다면 소현세자의 독살에 사용된 독극물도 마찬가지로 비상, 부자, 초오 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91].

그 중에서도 비상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독극물이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아 연산군을 낳고 왕비에까지 올랐던 폐비 윤씨는 질투심이 강해 성종의 다른 잉첩(媵妾)들을 죽이기 위해 비상을 숨겨 놓았다가 발각되어 인수대비의 미움을 받아 결국에는 폐위되는 일도 있었다[92]. 이런 폐비 윤씨 관련 사건은 궁중에서 독살의 목적으로 비상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독살, 또는 자살의 목적으로 비상이 종종 사용되었다. 성종대에 한 여승이 자신의 간통죄를 은폐하고자 비상을 사용하기도 했었고[93], 밥에 비상을 넣어 현숙공주(顯肅公主)[94]를 독살하려던 공주의 유모 등이 처벌되기도 하였다[95]. 영조 때에는 주인이 종을 비상으로 독살하고자 한 경우도 있었고[96], 이공형이란 인물이 강도질을 하려다 소문이 나자 증거를 없애려 자신의 아우를 비상으로 죽인 사건도 있었다[97]. 창녕에서는 추행을 당한 여인이 비상을 먹고 자살한 일도 있었다[98]. 이런 실록의

87) 우에노 마사히코著·박의우譯. 독살. 서울. 살림. 2005. p. 10.

88) 사약(賜藥)에 어떤 독극물이 들어갔는지 기록상에 나타나는 바가 없는 것은 사약이 인명을 앗아가는 것만큼 그 관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제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하여 구체적 언급을 금기시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89) "독약의 종류에는 중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짐독(鴆毒)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砒素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밖에 금, 수은을 먹이기도 하였고 生金, 生淸, 附子, 게의 알(蟹卵) 등을 合劑하여 쓰기도 하였다."(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2. 권 15. p. 581.)

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권10. p. 892.

91) 新註無寃錄에는 중독사(中毒死)의 종류로 술, 벌레 독, 비상, 고독(蠱毒), 파두(巴豆), 수은, 간수, 빙편(氷片) 등을 열거하고 있다.

92) 성종 8년 3월 29일, 대왕대비의 명으로 폐비 윤씨를 중궁의 자리에서 폐하는 문제를 논할 때 나옴. 중궁의 침소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비상이 들어 있는 주머니가 발견되었다. 인수대비는 윤씨가 성종의 다른 후궁들을 질투하여 제거하고자 한 것으로 보고 그 처리를 논의한다.

93)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여승(女僧) 정인(正因)이 중 학윤(學潤)과 간통하여 아기를 배고는 그 주인 홍씨(洪氏)가 이를 알고서 그 죄를 다스릴까 두려워하여 비상(砒霜)을 사용하여 홍씨를 독살(毒殺)시킨 죄는 형률(刑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6년 7월 26일)

94) 현숙공주(顯肅公主): 예종(睿宗)과 예종의 두 번째 부인 안순왕후 한씨 사이의 딸. 임사홍의 아들 임광재에게 시집감.

95) "풍천위 공주(豐川尉公主)의 유모 대이가 공주를 살해하려고 도모하여, 몰래 심복의 사람들과 비상(砒霜)을 잘게 부수어 공주의 밥에다 타서 해치려고 하였는데……" (성종 25년 5월 26일)

96) "민원보의 아들 민덕효(閔德孝)가 종 만재(萬才)는 적진에 글을 전하게 하였기 때문에 비상(砒霜)으로 독살하여 입을 없애려 하였으나, 그 종이 낌새를 알고 달아나 피하였습니다." (영조 4년 5월 13일)

97) 영조 9년 3월 24일.

98) "창녕(昌寧)의 여자……문옥이(文玉伊)는 그의 팔촌(八寸) 문중갑(文仲甲)과 함께 나이가 17세인데, 함께 나무를 하다가 문중갑이 음란한 행위를 하려 하였다. 문옥이가 동

기록들은 비상이 조선시대에 독살이나 자살에 가장 많이 이용된 대표적 독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자(附子)의 근연식물인 초오(草烏)도 종종 독살에 이용되었다. 성종 때에 안동의 한 여인이 본남편을 암살하고자 초오를 사용했었고[99], 광해군 때에는 역적의 괴수 최기(崔沂)란 인물이 소주에 초오의 독을 타 고변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100].

이와 달리 부자를 사용한 독살의 예는 실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민간에서는 독살에 부자가 사용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초오가 우리나라에 야생상태의 자생식물로 구하기 쉬운 반면에 부자는 자생식물이 아닌 수입약재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기록상 부자가 처음 수입된 것은 태종 6년이며[101], 세종 때에 와서 왜에서 바친 토산물 가운데 부자가 들어있고[102], 명(明)에서 부자 5근을 사신이 가지고 들어온 기록도 나타난다[103]. 즉 조선 초기에 부자가 수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東醫寶鑑』에 수록된 처방에 부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건대, 중기 이후 부자의 수입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고가의 귀한 약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世宗實錄·地理志』를 보아도 부자는 재배지나 생산지가 거론되지 않고[104], 초오는 전국 곳곳에 산지가 거론되어 나온 것을 보건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105].

이렇게 부자가 수입약재로 민간에서는 쉽게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을 볼 수 있지만 궁중에서는 일정량의 부자를 수입해 비축해 놓고 약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106]. 따라서 부자의 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당시에 얼마든지 사약의 조제에 부자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실록 안에는 비상이나 초오가 독살에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밖에 수은(水銀)이나 복어의 독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은은 성종 22년에서야 주사(朱砂, HgS)를 가열해 수은을 얻게 된 기록이 나오는 것[107]을 보건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그 제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108]. 실록의 기록에는 영조 때에 역모관련 고변을 막고자 경분(輕粉), 즉 수은을 이용해 주모자를 독살한 사건이 한번 나타난다[109]. 세종 때에는 하돈(河豚), 즉 복어의 독을 이용하여 사위가 장인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110].

성(同姓)인 것으로써 꾸짖고 옷소매를 떨치고 돌아와 울면서 그 상황을 형에게 말하고는 몰래 비상을 구해 마시고 죽었으니……문중갑은……감사도배(減死島配)하라고 명하였다." (영조 45권 13년 9월 23일)

99) "안동(安東)의 죄수 역녀(驛女) 문을비(文乙非)가 간부(奸夫)인 수만(守萬)과 더불어 그 본남편인 명실(命實)을 죽이려고 하여, 초오두(草烏頭)를 콩죽에 섞어서 먹인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성종 8년 8월 26일)

100) "역적의 괴수 최기는……초오(草烏)의 약을 주어 소주에 독을 탔다. 한밤중에 흉악한 짓을 하여 바닷속에 시체를 던져넣었고, 고변하는 사람을 모두 없애…… " (광해군 9년 3월 27일)

101) 태종 6년 12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명(明)에서 동불(銅佛)을 보낸 답례품으로 18가지 약재를 보내왔는데, 그중 부자가 들어있다.

102) 세종 5년 2월 5일. 세종 5년 10월 15일.

103) 세종 7년 11월 7일.

104) 부자와 전혀 다른 식물인 백부자(白附子)는 전국에 걸쳐 산지가 나온다.

105) 초오는 산지에 대한 기록이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제주, 황해, 강원, 평안도 등 전국에 걸쳐 약 15회 나온다.

106) "전의감에서 부자리중탕(附子理中湯)을 조제(調劑)하여 올린다 합니다. 부자(附子)는 맛이 쓰고, 따뜻하며 열을 많이 내고 큰 독이 있으며……" (단종 즉위년 12월 25일)

107) "충찬위(忠贊衛) 김중보(金仲寶)가 스스로 주사(朱砂)로써 수은(水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므로, 그 기술을 시험하게 하였는데, 조그마한 그릇에 주사를 담고 밑에서 불을 피우고 위에는 소반으로 덮으니, 연기가 방울처럼 엉켜서 마침내 수은이 되었으므로, 명하여 면포(綿布) 10필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 22년 3월 19일)

108) 조선 초기에도 수은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타난다. 특히 수은을 덧칠한 갑주인 수은갑(水銀甲)은 여러 차례 나온다. 아마도 당시에 중국을 통해 수은이 일정량 수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09) "박찬신이 잡혀 온 뒤로 그의 아들 박태엽(朴台燁)이 그의 아비가 윤상백의 끌어들인 바가 되었다고 여기면서 만약 윤상백을 살해하면 벗어날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신이 과연 은자(銀子)를 나졸(羅卒) 신상윤(申尙潤)에게 전급(轉給)하면서 경분(輕粉)으로 윤상백을 독살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영조 31년 3월 26일)

110) "전라도 정읍현의 전별장(前別將) 정을손(丁乙孫)이 그의 딸 대장(臺莊)과 후처(後妻) 소사(召史)가 음란한 행실이 있으므로 이를 구타하고, 또 대장의 남편 정도(鄭道)를 구타하여 내쫓으려고 하니, 도가 하돈(河豚)의 독을 을손의 국에 타서 독살하였는데……" (세종 6년 12월 6일)

2) 『新註無寃錄』의 검시법

조선시대 대표적 법의학서인 『新註無寃錄』에는 독약을 먹고 죽은 시신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입술이 찢어지고 혀가 문드러지고, 입 안이 검붉거나 검고, 손톱이 푸르다."[111]

"생전에 중독된 사람은 전신이 청흑생이 되고 시일이 많이 지나더라도 피육은 그대로 있으면서 검은색으로 변한다."[112]

"흔히 입과 눈이 벌려져있고, 안색은 검붉고 짙은 검은색이거나 청색이며, 입술은 검붉은 흑색이고, 수족과 손톱 발톱은 모두 검푸르며, 입·눈·코·귀 사이에 간혹 피가 나와 있다."[113]

"입과 눈이 열리고 전신이 검게 부어오르고, 입·코·눈에서 검붉거나 검은 피가 흐르고, 혹 손톱·발톱이 검은 색이 되고, 피부가 갈라지고 수엽과 터럭이 들떠서 씻을 수가 없다."[114]

『新註無寃錄』에서는 독약을 먹고 죽은 경우, 손톱·발톱이 검푸르고 전신이 청흑색이거나 흑색을 띠고, 입술이 찢어지고 문드러지거나 입·눈·코·귀 사이에 출혈이 있기도 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중 비상을 먹고 죽은 경우는 온 몸에 작은 포진이 발생하고 전신이 청흑색을 띠며, 눈동자와 혀가 터져 나오고, 입술이 파열되며, 복부가 팽창되는 등의 시신상태를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상과 야갈[115]에 중독되어 죽은 경우는 춘하추동의 일복시(一伏時)를 지나면 온몸에 작은 포진이 발생하여 청흑색이 되고, 몸 위가 또한 청흑색이 된다. 눈동자가 터져나오고, 혀 위에 작은 혓바늘이 돋고, 혀 또한 터져 나오며, 입술이 파열되고, 두 귀가 부어서 커지며, 복부가 팽창하고, 항문이 부어 벌어지며 손톱·발톱과 입술이 청흑색이 된다."[116]

이런 시신의 상태와 함께 독살을 확인하는 대표적 검시 방법이 은비녀를 이용하는 은차법(銀釵法)이었다. 독살의 경우 은비녀를 입속에 깊이 넣었다가 꺼내 보면 비녀가 검게 변한다는 것[117]이다.

이 밖에 시신의 입에 흰 밥 한 덩이를 집어넣었다가 꺼내 닭에게 먹여 닭이 죽게 되면 독살로 판정하는 반계법(飯鷄法), 찹쌀·찰수수 등을 이용하여 좀 더 복잡한 검험과정을 거치는 점반법(粘飯法)[118] 등이 사용되었다[119].

은비녀를 사용하여 독살 여부를 판정하는 은차법은 황(S)을 이용한 검시 방법으로 생각된다. 비소(As)와 황(S)의 화합물인 계관석(AsS), 웅황(As_2S_2), 자황(As_2S_3) 등은 황성분이 은과 결합하면 검은색의 황화은으로 변한다. 음식물에 독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은수저를 쓰는 방법은 독극물 가운데 비소 화합물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현세자의 시신은 전신이 짙은

111) 王與·김호譯.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서울. 사계절. 2003. p. 455. "毒藥死 本屍唇破舌爛 口內紫黑 手指甲靑"

112) 王與·김호譯.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서울. 사계절. 2003. p. 461. "生前中毒 屍遍身作靑黑色 多日 皮肉尙有 亦作黑色"

113) 王與·김호譯.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서울. 사계절. 2003. p. 463. "凡服毒死 屍口眼多開 面紫黯或靑色 唇紫黑 手足指甲俱靑黯 口眼耳鼻間有出血"

114) 王與·김호譯.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서울. 사계절. 2003. p. 461. "被藥死 口眼開 遍身黑腫 口鼻眼內出紫黑血 或手脚指甲黑色 皮有拆裂 鬢髮浮不堪揩洗"

115) 야갈(野葛): 단장초(斷腸草).

116) 王與·김호譯.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서울. 사계절. 2003. p. 467. "中砒霜野葛毒死 春夏秋冬得一伏時 遍身發小皰 作靑黑色 身上亦作靑黑色. 眼睛綻出 舌上生小刺皰 若亦綻出 口唇破裂 兩下脹大 腹肚膨脹 糞門脹綻 十指甲唇有靑黑色"

117) 王與·김호譯.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서울. 사계절. 2003. p. 455. "毒藥死……以銀釵探入喉中 少時取出其釵黑色."

118) 찹쌀로 밥을 하고 그 위에 찰수수를 씻어 보자기에 담아 계란이나 오리알 흰자위를 섞어 찹쌀밥 위에 놓아두었다가 오리알 크기만큼 단단하게 뭉쳐 시체의 입에 틀어막는다. 이 위에 작은 종이 3-5장으로 입, 귀, 코, 항문, 생식기를 틀어막는다. 초(醋)를 센 불에 끓여 솜덩이를 집어넣어 삶은 후 곧바로 지게미를 시체에 덮고 삶은 솜을 그 위에 덮어둔다. 독살일 경우 시체가 부어오르고 입 안의 악취와 냄새나는 즙이 솜 위로 뿜어져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다. 솜을 제거하면 수수밥에 악취나는 오물이 묻어 검은 빛을 띤다.

119) 김호. 원통함을 없게 하라-조선의 과학 수사와 무원록의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pp. 93-96.

검은색을 띠었고 이목구비(耳目口鼻)에 출혈이 있었다. 이것은 무원록의 내용처럼 누가 보더라도 독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신이었다. 그러나 은차법(銀釵法), 반계법(飯鷄法), 점반법(粘飯法), 그 어느 것 하나도 석연치 않은 세자의 죽음을 규명하는데 동원되지 않았다.

3) 시신에 나타난 비상의 흔적

이렇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건대 소현세자가 독살되었을 혐의는 매우 높다. 그렇지만 독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어떤 것인지, 또 사용된 독극물이 한 가지였는지,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이었는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단정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비상이 조선시대 민간이나 궁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된 독물이었고, 세자의 시신 상태에서 비상을 먹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독살에 이용된 독물은 바로 비상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비상은 비소 산화물인 아비산(亞砒酸, As_2O_3)을 말한다. 자연 상태의 비소 자체는 거의 독성이 없으나 여러 가지 비소 화합물은 대부분 독성을 띤다. 그 중 아비산(亞砒酸, As_2O_3)이 가장 강력한 독성을 발휘하는데, 무색, 무취, 무미의 백색 분말로 음독이 용이해 자살과 독살에 가장 흔히 사용되던 독소였다. 이러한 아비산, 즉 비상은 독물분류상 實質臟器에 변성을 초래하는 實質毒에 속한다. 심장·간장·신장 등의 변성과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특히 혈액 및 혈관벽에 병변을 일으켜 전신에 혈관출혈이 발생한다[120].

소현세자의 시신이 검고 이목구비에 출혈이 있었던 것은 비상의 독성으로 혈관이 터져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두 가지 이상의 독물이 함께 사용되었다면 비상과 함께 부자, 초오 정도가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부자나 초오에 들어있는 독물질인 아코니틴(Aconitine)은 독물분류상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神經毒에 속한다. 중독 증상으로 腹部激痛, 구토, 지각마비, 心筋刺戟으로 인한 心不整脈, 경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다. 시신에는 특이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121].

그러나 소현세자의 경우 비상 하나만 썼을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탕제에 몰래 독극물을 탈 경우, 다른 어의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2가지 이상의 독물을 여유롭게 넣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 여러 독물을 하나로 조합해 만들어 사용했을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많지 않고, 분말 형태의 비상이 휴대도 간편하고 비밀리 신속하게 탕제에 넣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아코니틴은 시신에 특이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122] 세자의 시신상태만으로는 부자나 초오가 사용된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세자 사망 당일, 이형익은 소시호탕에 비상을 넣어 소현세자를 독살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된다.

6. 맺는 말

소현세자의 죽음은 학질로 인한 병사(病死)인가? 아니면 부왕 인조에 의한 독살(毒殺)인가?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독살되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려진다.

최근 소현세자의 『東宮日記』가 국역되어 독살설과 관련한 새로운 기록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일기에는 건강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볼모생활을 하며 화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린 끝에 '스트레스'로

120) 禹相惠. 法醫學. 서울. 最新醫學社. 1982. pp. 271-272, 285-286.

121) 禹相惠. 法醫學. 서울. 最新醫學社. 1982. p. 271, 291, 310.

122) 부자는 먹었을 경우 외부소견이 드러나질 않는다. 흔히 역사관련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약을 먹고 피를 토하면서 죽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부자만으로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약을 먹고 피를 토하는 증상이 있었다면 이것은 사약에 부자 이외의 다른 독극물, 즉 비상과 같은 독소가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한 학질로 숨졌다는 내용이 나온다[123].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124] 이 기록만으로 독살설을 뒤집을만한 확증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東宮日記』가 비록 측근의 세자시강원의 관리들에 의해 관찰·기록된 내용이지만 당시에 독살혐의를 가질만한 정보를 그들이 갖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125]. 인조는 소현세자의 대렴과 소렴에 극히 한정적인 인원만 참여토록 한다. 특히 동궁 소속의 관리인 궁관(宮官)과 세자빈 소속의 관원인 빈궁당상(殯宮堂上)은 아예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다[126]. 세자 측근의 사람들은 독살혐의의 증거가 되는 염습시의 세자 시신상태를 보지 못한 것이다.

실록에 나타난 세자의 시신상태라든지, 세자 사후 인조가 보여준 석연치 않은 태도, 그리고 의심 많은 인조의 성격과 함께 후궁 조소용이 그 의심을 옆에서 부추긴 점을 생각해 볼 때 소현세자는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소현세자의 실용적 親淸사고는 삼전도의 치욕을 안고 있는 인조에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춰졌으며 자연히 세자에 대한 극심한 감정적 반감을 야기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위교체설'은 인조에게 더 이상 소현세자가 자신의 큰아들만이 아닌 왕권에 위험이 되는 최대의 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이런 배경으로 인조는 소현세자를 의심하고 독살까지 한 것으로 보여진다.

독살의 혐의를 두고 생각해보면 사용된 독극물은 비상으로 추측된다. 비상은 자살이나 독살 목적으로 조선시대에 가장 흔히 이용된 대표적 독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상은 소량으로도 치사의 효력이 확실하며, 무색·무취·무미의 분말로 음독시키기나 비밀리 탕제에 넣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자의 시신상태는 비상으로 인한 독살의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게 만든다.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사망 당일의 기록을 토대로 추리를 해보면 소시호탕에 비상이 들어가 세자는 절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독살을 직접 행동에 옮긴 인물은 인조의 총애를 받았고 조소용의 측근이기도 했던 의관 이형익으로 보여진다.

명분보다 실용을 먼저 생각했던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은 결국 조선 사회의 개혁의 좌절로 나타났다.

123) 동아일보 7월 19일자 보도.

124) 개인적으로 본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본 기사의 보도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현세자의 東宮日記를 완역하였고, 올해 말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고에서 이 내용을 참조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리게 되어 아쉽게 생각한다. 차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125) 세자시강원의 관리들이 소현세자의 독살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기술할 경우 자신들에게 닥쳐올 파란을 염려해서 정확한 기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세자의 급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했지 않나 생각된다.

126) "정원이 아뢰기를 '대렴과 소렴 때에는 궁관(宮官) 한 사람 및 빈궁 당상(殯宮堂上)은 들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인조 23년 4월 27일)

참고문헌

<논문>

1. 김훈. 조선시대 仁祖의 질병에 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18권 2호. 2005.
2. 김훈. 朝鮮中期 鍼醫의 활동과 李馨益의 燔鍼術. 한국의사학회지. 18권 2호. 2005.
3. 김인숙. 인조의 질병과 번침술. 의사학. 2004. 13(2)
4. 한명기. 丙子胡亂 패전의 정치적 파장-청의 조선 압박과 仁祖의 대응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2003. 119호

<단행본>

1. 김호. 원통함을 없게 하라-조선의 과학 수사와 무원록의 세계. 서울. 웅진씽크빅. 2006.
2.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 우에노 마사히코著·박의우譯. 독살. 서울. 살

림. 2005.
4. 박영규. 조선의 왕실과 외척. 서울. 김영사. 2003.
5. 王與·김호譯. 억울함을 없게 하라, 신주무원록. 서울. 사계절. 2003.
6.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서울. 돌베개. 2002.
7. 시노다 고이치著·이송은譯. 중국 환상세계. 서울. 들녘. 2000.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9. 新太陽社編輯局. 원색최신의료대백과사전. 서울. 新太陽社. 1991.
1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12. 金用淑. 朝鮮朝宮中風俗研究. 서울. 一志社. 1987.
13. 이문호 외. 內科學. 서울. 學林社. 1986.
14. 소진탁. 寄生蟲學槪論. 서울. 신광출판. 1984.
1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6.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2.
17. 禹相悳. 法醫學. 서울. 最新醫學社. 1982.
18.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法制處. 1979.
19. 朝鮮王朝實錄
20. 承政院日記